

道 “농협·마사회 이전”...농생명 공공기관 유치 총력

연구·실증 기반 산업 경쟁력으로 연구·금융·유통 농생명벨트 구상 새만금 연계 말산업·푸드테크 육성 “농생명바이오 거점 완성할 것”

전북도가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농업정책보육금용원·식품안전정보원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총력전을 펼친다.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스터·한국식품연구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농생명 연구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유통·금융·안전관리 기능을 한데 모으겠다는 구상.

25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1차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종자·미생물·기능성식품·스마트농업을 아우르는 농생명 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기반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면 연구 성과를 현장에 연결할 유통·금융·마·재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농, 산업 리스크를 완충할 정책금융, 수

출을 뒷받침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농협중앙회’ 유치를 겨냥해 전북은 농촌진흥청 4대 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이 집적된 농생명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 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닿으려면 전국 단위 유통·보급 네트워크를 갖춘 농협과의 연계가 선결 과제다. 농협이 이전하면 종자·미생물·첨단농업 분야 성과가 농협 유통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산지 중심 수급 예측·가격 안정 시스템 실증과 디지털 생산·유통 혁신모델 보급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 특화 금융모델 개발과 바이오벤처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도 기대 효과로 꼽힌다.

특히 ‘한국마사회’ 유치는 전북이 2018년 지정된 말산업특구(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를 바탕으로 사육·조련·승마·재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마사회가 이전하면 전주 축산 R&D,

익산·정읍 동물용의약품 기반, 새만금 복합레저 단지를 연계해 생산(1차)·사료·유통(2차)·경마·관광(3차)이 결합된 말산업 전주 클러스터로 완성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실현이 어려운 말목장·테마파크 복합 조성도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를 통해 가능해지며, 재래승마·치유농업 연계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농생명·레저·관광 융합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육금용원’을 놓고는 전북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원료·가공·유통·수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정책금융·보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업정책보육금용원이 이전하면 클러스터 전 단계에 보험·보충·금융 지원 체계가 조성되 기대 효과로 꼽힌다. 특히 ‘한국마사회’ 유치는 전북이 2018년 지정된 말산업특구(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를 바탕으로 사육·조련·승마·재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마사회가 이전하면 전주 축산 R&D,

서 선도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 역시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기업 집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식품안전·품질관리의 현장 실증에 최적의 환경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이전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디지털로 연결된 K-푸드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며, 한국식품연구원·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산물 위해요인 데이터화 및 AI 예측모델 실증도 앞당길 수 있다. AI 기반 위해 예측·스마트 HACCP·이력 추적 고도화로 푸드 세이프티 테크 역량을 강화하고,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단지와 연계해 수출형 식품안전 인증 거점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가 실현되면 연구에서 금융·유통·안전관리까지 농생명 산업 전 과정이 한 지역에서 작동하는 국가 농생명바이오 거점이 완성될 것”이라며 “전북으로의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정철 기자

전북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투표소 557곳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예정 4670명 거소투표신고인에 발송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 557곳을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등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거소투표신고인 467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370여 명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및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투표시간 및 준비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선거일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

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공약 등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붙은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거소투표지는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정철 기자

김관영 후보, 여야 향해 전방위 반격

민주당 향해 “발언 왜곡”...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김관영 후보가 개소식에서 한 발언 중 일부만을 발췌해 ‘당선무효형을 알고도 출마 강행’ ‘수십억원 형세 낭비’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도당이 낸 논평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면서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청년들한테 대리기사비를 줬다가 잘렸다. 최악의 경우에 당선무효가 날 수도 있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15억을 물어내야 된다”는 김 후보 발언을 인용하고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무소속 도지사 출마를 강행했다”고 단정했다.

선대위는 “도당은 이후에 이어진 ‘그러나 저는,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법도 상식과 도덕 위에 있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빼

버렸다”면서 “김 후보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단정적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대리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행위 자체는 잘못했지만 법원의 판결도 도덕과 상식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실제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사법 리스크 질문을 받자 “대리비용을 선의로 지급했고, 대부분 회수했다. 그 전체 과정에서 저는 법이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선대위는 범원 판례도 제시했다. 이 판례에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이탈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심어줄 목적이 명백하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명시했다. /정정철 기자

이원택·양정무 판별 공유 의혹에 “토론자료 출처 밝혀라”

여야후보 동일 판넬 원팀 의혹 제기 “글꼴·색상·줄바꿈까지 완전 일치”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방송토론회에서 여·야 후보가 똑같은 판넬을 들고 나와 ‘원팀 의혹’이 제기됐고, 그 중심에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서 있다며 자료 입수경위를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25일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원택 후보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토론자료를 만들어 캡처 단풍방에 올렸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양 후보에게 흘러 갔다는 것”이라며 “양 후보는 황실수설 하지말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러”고 요구했다.

특히 “세 번에 걸친 방송토론회에서 여당에 날을 세워야 할 양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을 때부터 ‘수상한 김새’가 포착됐다”면서 “거대 양당의 후보가 여당 후보가

만들어 놓은 토론자료를 슬쩍한 것 자체가 해당하고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양 후보가 이 사안을 얼렁뚱땅 회피하려 한다면 더 큰 파문으로 확산 될 것”이라며 “후보와 정책팀이 직접 공부하고 찾아서 만든 것이어서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는 “우리는 두 후보의 판넬이 글꼴·레이아웃·강조색상·피어싱기와 줄바꿈·강조표시 등에서 완전 일치해 하나의 디지털 원본에서 출력됐다는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며 “진실에 기반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선대위는 “이 문제는 양당후보를 넘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책임을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공당의 토론자료를 공유해 무소속 후보를 공격하는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 것인지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고 주장했다.

/정정철 기자

김관영 선대위 “정청래식 표적징계 중단하라”

“전북만 선택적 징계” 반발 “무소속 돌풍 압박 치졸한 선택”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당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은 전북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징계”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당이 당규에 의해 징계를 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기에 문제 삼을 게 없다”면서 “판건은 징계권한이 형평에 맞게, 수긍할 수 있게 진행되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대위는 “정청래 사건의 전북지역 당

원에 대한 징계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관영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치졸한 선택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탄압을 하면 할수록 전북 민심은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기”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평택을 선거구를 보라. 이호철 전 청와대 수석이 조국 후보 지지

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최강욱 전 의원도 지속적으로 조국 후보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며 “과연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우리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이유도 제명과정의 공정성이 상실됐고 가혹했기 때문”이라며 “전북은 정청래 지도부의 하청 조직이 아니다. 표적징계를 단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정철 기자

전북도, 구제역 선제 대응...방역관리 강화

전북도는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제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접종 관리 강화와 취약농가 집중관리, 예찰 확대 등을 포함한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1-2월 인천·경기지역에서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구제역 발생과 중국 등 해외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백신접종 누락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비해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AT1형 구제역은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국내 사용 중인 O+A형 백신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철저한 백신접종, 신속한 의심신고 등 초기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소·염소에 대해 연 2회(3월·9월)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사육단계별 수시접종 체계를 유지한다.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개체별 접종 여부를 관리하고, 접종 누락·유예 개체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과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혈청예찰을 확대한다. 12개월령 이하 소에 대한 취약개체 검사 비율을 높이고 백신 구제량 부족이나 접종정보 등록이 미흡한 농가에는 특별점검과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항체검사 물량도 기존보다 50% 확대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와 방역 취약농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200두 이상 소 농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소독설비 운영 여부와 출입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오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단체·축협·방역기관과 협력해 대면 교육과 SNS·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 발생 사례와 방역 미흡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농가의 책임방역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농가에서는 백신접종 누락 방지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철 기자



전주시 3D 식품프린팅 산업 발전 모색

시-전북도 심포지엄 개최 푸드테크 분야 전문가 참여 기술 동향 활성화 방안 논의

전주시와 전북도가 미래 식품산업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3D 식품프린팅이란 식재료를 잉크처럼 활용해 디지털 설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드는 기술로, 개인별 영양 설계와 대체육 개발, 창의적인 요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푸드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푸드테크 분야 유관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최근 개인 맞춤형 식품과 디지털 기반 식품 생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개발 현황과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식품 3D 프린팅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

과 산업화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는 '식품 3D 프린팅 기술 동향 및 연구 개발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이산홍 ㈜엘에스비 대표는 '맞춤형 푸드 프린팅 산업 적용 사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주제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범근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와 이산홍 ㈜엘에스비 대표, 이인환 충북대학교 교수, 이웅희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

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3D 식품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푸드테크 산업 적용과 응용, 공감대 확산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패널들은 식품 3D 프린팅 기술이 개인 맞춤형 식품 생산과 고령친화 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분야 등 미래 식품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주 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성금 기탁

취약계층에 300만원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성금 기탁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직원들이 3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후원회 사회공헌 기금 및 금강유역본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마련됐다. 특히 금강유역본부 임직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에 동참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대청댐·용담댐·보령댐·부안댐 등 4개의 다목적댐과 금강을 수원으로 하는 10개 관역상수도 시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야간관광 '윤슬마켓·달빛한잔' 운영

매주 금·토요일 밤 운영 6월 5일 '맛있는 전주심야극장' 9월~10월 '야간연회' 예정

전주시가 핵심 콘텐츠 '윤슬마켓'과 '달빛한잔'을 전주천 일원에 운영을 시작하며 야간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전주천과 원도심 문화공간 등에서 '윤슬마켓'과 '달빛한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주천 자연경관과 원도심 문화공간을 연계해 야간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천동로 일원(남천교~완판본문화관 약 500m 구간) △완판본문화관 야외마당 △오목교 교량 위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윤슬마켓'은 전주천변을 배경으로 지역 예술인 작품과 디자인 소품을 판매하



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전주천과 원도심 문화공간 등에서 '윤슬마켓'과 '달빛한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전주시>

는 야간형 플리마켓으로 운영된다. 체험·소비형 야간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민 기자

또 함께 운영되는 '달빛한잔'은 전주천 야경과 공연을 결합한 가벼운 주류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 펍(Street-Pub) 형태의 야간 프로그램이다.

단, 주류 허용 공간은 완판본문화관 야외마당으로 별도 구분하고, 오목교 교량 구간은 주류 반입은 제한된다.

시는 이번 윤슬마켓과 달빛한잔 운영을 통해 전주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맛있는 전주심야극장', 9월과 10월에는 '야간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주의 전통문화와 현대 감성을 결합한 야간콘텐츠로 연중 전주의 밤을 다채롭게 채워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이씨들에 핀 아름다운 벼' 특별전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기념 특별전 '이씨들에 핀 아름다운 벼'를 개최한다.

특별전은 지난해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주 이씨 사정공파(마전) 종중 문서'를 중심으로 전주 이씨 집성촌인 마전마을과 이씨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크게 △호적류 고문서를 중심으로 마전마을에 뿌리내린 전주 이씨의 이야기 △교지와 분재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서부신시가지의 넓은 이씨들의 주인과 관련된 이야기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가는 길' 영상 △소지류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마전마을의 유지'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또 전시 첫날에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김영준 전북대학교 이재연 교수 연구교수를 초빙해 '전주의 명문가 마전 이씨 고문서 톨아보기'를 주제로 전시 연계 특별 강연과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특별 전시를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분재기와 준호구, 소지 문서를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 후기 전주 효자동에 거주한 사람들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으며,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녹조예방'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용담·옥정호 주변 50㎡/일 시설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북지역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용담호의 경우 조류경보제 시행(2003년) 이후 6차례, 옥정호의 경우 조류경보

제 시행(2008년) 이후 2차례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어 주변지역 환경오염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옥정호는 지난 2년간(2024년, 2025년) 연속해서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어 올해부터는 조류 모니터링 결과와 확인 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경보제 당일 발령대상 호소로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용량이 비교적

큰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정소민 기자

개인이 직접 설치·운영·관리하고 최종 방류수는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방류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녹조 대량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소민 기자



전주비보이그랑프리 'EIGHT'팀 1위

세계 최정상급 브레이크 댄서들이 격돌한 '제19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에서 'EIGHT'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대회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라스트포인'이 주관했다.

이날 본선대회에 오른 8개 팀은 팀별 개성 있는 퍼포먼스와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우승은 'EIGHT'이 차지해 상금 1000만원을 거머쥐었다.

2위를 차지한 'BREAK POINTS'에는 상금 400만원과 상패가, 공동 3위를 차지한 'CAY CREW'와 'FMC YG'에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세계 연합팀 2팀과 중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중국 팀 1팀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박인수 전 국가대표를 포함한 국내 정상급 크루와 일본, 대만, 브라질 등 해외의 브레이크 댄서들이 한 무대에 오르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 경연 이외에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전주 출신 국가대표 비결 전지예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심사위원들의 쇼케이스가 펼쳐졌으며, 스트릿댄스팀 '한아(HANYA)'와 청소년 워킹댄스팀 '쏘왓(SO WHAT)'의 특별공연도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일원에서는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및 팝업스토어 등 스트릿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리는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은 국내 최정상 브레이크 댄서들이 참여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다.

/김영태 기자

덕진구 어린이집 여름철 급식·위생 안전 강화

구, 오는 8월 14일까지
덕진권역 어린이집 대상 점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여름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덕진구 권역 18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자체 자율점검과 맞춤형 현장 진단 방식이 병

행된다.

점검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이 투입돼 보육 환경 전반을 촘촘하게 살필 계획이다.

구는 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 35개소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32개소 등 총 60여개소를 현장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고강도 위생 점검과 현장 지도가 병행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식재료 관리 △식단표 관리 △급식 운영관리 등으로,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구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분쇄가공육 조리 시 중심 온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여름철 식단 구성 시 생체소나 생김치 대신 가열 조리된 메뉴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또, 조리식품과 기구 등 1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와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덕진권역 전체 어린이집의 15%인 2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안전 점검 시에는 태풍·호우 등 하절기 재난 대응 체계는 물론, 소방·전기·가스 설비의 작동 여부와 시설물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나 가스 누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와 차단기 상태 등을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근 중요성이 커진 미세먼지 관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사랑의열매 지역사회 복지증진한 5개기업 감사패 전달

지역공동체 든든한 버팀목 역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5개 기업 △(주)휴비스 전주공장 △법무법인 백제 △전북도시가스(주) △주식회사 성실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역본부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은 그간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평소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관련해 사랑의열매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선 5개 기업들을 격려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도려왔다.

한편 전주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전주시>

중기부, 민관공동R&D 3차 공고

총 100억원 규모 105개 과제 지원... 내달 26~29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3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는 올해 상반기 발표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2차 시행계획의 후속 공고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연계·상생협력' 트랙의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이다.

앞서 중기부는 상반기 공고를 통해 총 501억원 규모, 394개 과제의 신규 모집을 추진하며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상반기 1·2차 공고는 총 3개 트랙 △우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화'에 200억원(200개 과제) △실용성 단계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돕는 'TRL 점프업'에 100억원(100개 과제) △수요처·투자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 과제)을 각각 배정했다.

제3차 공고 대상인 '구매연계·상생협력' 트랙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구매·투자 의사 확정한 뒤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기술개발부터 판로 확보까지 연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R&D(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번 제3차 공고에서는 총 100억원 규모로 10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당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에서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구매연계형'과 '상생협력형'으로 구분된다.

'구매연계형'은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을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이후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생협력형'은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상생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도청>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

발전·사업방안 논의

이회도 농업인의 편의증대·유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회장 김기수) 회원 조합장 등 20여명은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안건 등 영농지원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및 유가 상승으로 시름하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는 전북 북지역 농협주유소의 운영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

의회도 농업인의 편의증대·유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협의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조합장 28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기수 협의회장은 "농협주유소 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영농지원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및 유가 상승으로 시름하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한국훈련' 실시

정읍시·경찰 등 참여 현장중심 재난대응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읍시·경찰·소방 유관기관 등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이다.

이날 19개 기관 소속 약 300여명이 참여한 산사태에 의한 복합재난 상황 대응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해 훈련과 차별화해 현장훈련과 함께 총 3차례 토론 훈련을 실시해 피해자 구조·복구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지원, 현장 심리 안정,

상황 전파체계 등 재난 이후 수습 단계 대응까지 포함해 훈련 실효성을 높였다.

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정읍시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질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훈련은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건물붕괴와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더불어 인근 용산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맞게 설정됐다.

복합재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정읍시 등 유관기관은 조동조치·진압·수습·복구 등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 훈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련으로 진행됐다.

남화영 사장은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면밀히 분석·보완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 138억 원 규모 관광개발 본격화

완주 오성한옥마을, 'K-풍류' 콘텐츠 강화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완주군 오성한옥마을 일대가 최종 선정돼 5년 간 총사업비 138억원(국비 60억, 도비 18억, 군비 6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통한옥과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예술·미식 콘텐츠가 융합된 지역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상설 공연·전시 및 미디어 콘텐츠 운영 △AI 기반 관광안내 플랫폼 구축 및 풍류 스테이 조성 △프리미엄 관광서비스 및 미식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K-풍류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

가를 견인하고 글로벌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 문화 체험형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지역주민 참여 기반 관광생태계 구축 △민간 중심 운영체계(거버넌스) 확립 △지속 가능한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관광개발 모델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모 준비 초기 단계부터 전북 연구원 및 완주군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다.

/정정철 기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성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완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공모 선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완주 K-풍류를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북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매력적인 국제 관광목적지로 도약시키겠다"며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전북 전반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생협력형'은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상생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도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호국원 묘역 정화 봉사

호남권광역센터, 호국영령에 감사와 경의 표해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호남권광역센터 직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가족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사랑과 보존의 의미를 체감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출자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420여개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공제사업, 지방재정지원 및 지역협력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의의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철 기자

전북경진원 '협약은행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경쟁력 강화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2일 '협약은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북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 이에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전북은행 등 주요 시중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울러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치연장 지원 및 대환대출 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

가 이뤄졌다.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한편 자세한 관련내용은 전북도 및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실제 고랭지에서도 기후 온난화로 야열대성 해충이 증가하고 저온성 해충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해충 발생 양상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고랭지 배추 재배 발생 조사에서 잎벌레류와 나방류 해충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고랭지 배추밭 병해충 피해 최소화"

강원도 고랭지 폭염일수가 과거 40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면서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폭염과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늘어나는 주요 해충의 특징과 방제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온은 해충의 발육 속도와 번식, 출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 고랭지에서도 기후 온난화로 야열대성 해충이 증가하고 저온성 해충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해충 발생 양상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고랭지 배추 재배 발생 조사에서 잎벌레류와 나방류 해충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군산시, 이화명나방 피해 예방 긴급·공동방제

내달 10~20일까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는 배 재배 초기 발생하는 이화명나방(화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군산쌀 생산을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이화명나방 긴급·공동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

력 부족에 대응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이화명나방 다발생 지역 2,584ha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방제기간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병해충 예찰 결과와 기상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방제 대상은 이화명나방(1화기)으로, 2025년 병해충 예찰 결과를 반영해 다발

생 지역 중심으로 방제 구역을 설정했다.

주요 방제 대상 지역은 옥구읍 어은리·오곡리·수산리, 회현면 금광리·증서리·학당리, 대야면 지경리·복교리, 산북동·내초동 지역 내 농지이다.

시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긴급·공동방제반을 구성해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긴급·공동방제 신청기간은 5월 22일까지로, 신청은 농지소재지 지역농

협에 하면 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이화명나방은 발생 초기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한 해충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방제를 당부 드린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공동방제를 통해 안정적인 배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식 기자

진안우체국-진안소방서 '화재 안전' 업무협약

현재 화재에 의한 피해 규모가 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안우체국과 진안소방서가 지역사회 화재 및 산불 예방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재 및 산불 예방 공동 캠페인과 안전 문화 확산 활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관련해 양 기관은 △집배원 통한 예방 홍보 △갑상시 활동 참여 △화재 및 산불 예방 홍보물 부착 △화재 위험 요소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에 앞장선다.

여기에 양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진안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은다.

동시에 진안소방서와 진안우체국은 일상 속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한편 지역사회 안전 문화 모으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남호·천호성, 도내 사찰·시장서 유세전

**부처님 오신날 표심 공략
이남호 “권역별 특화”
천호성 “교육 격차 해소”**

이남호,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24일 도내 주요 사찰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주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인용하면서도, 학력 신장과 교육 격차 해소 등 전북 교육 혁신을 위한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남호 후보는 24일 진안 고원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완주 송광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봉축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후에는 익산 북부시장과 영등동, 전주역 삼거리를 차례로 돌며 상인과 학부모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은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며 “기초학력을 책임지



이남호 예비후보



천호성 예비후보

는 학력신장 30을 도입하고 농산어촌, 다문화, 장애학생 등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는 진안 지역에 에듀플렉시 및 농번기 온종일 돌봄 확대를, 익산 지역에는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및 기술형 명품 중학교 설립을 제시

했다. 전주는 전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과 IB 교육특구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천호성 후보는 김제와 전주 지역의 유명 사찰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불자 및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천 후보는 김제 금산사 주자장 유세를 시작으로 금산사 봉축 법요식과 귀신사

를 잇따라 찾았으며, 오후에는 전주 참좋은우리절과 정혜사를 거쳐 전주 합동유세에 참여했다.

천 후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오늘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아이들이 경쟁과 서열에만 내몰리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천 후보는 학교와 지자체,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학생 성장 기반의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전을 이어갔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휴일을 맞은 두 후보가 도내 각 권역을 돌며 세 대결을 펼친 가운데,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지역 연계 교육 모델을 둘러싼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라인업 공개”

내달 13~14일 열려

김제시가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최종 라인업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음악의 향연과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휴식과 감성을 제공하는 힐링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내달 13일에는 대한민국

국 대표 명품 보컬리스트 ‘케이윌’과 감성적인 보컬 그룹 ‘가비엔제이’, 뮤즈그레인, 이종민 등이 출연해 모악산을 감성적인 선율로 채울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브브걸’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제니스’의 트렌디한 무대가 펼쳐지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은 “최종 라인업 공개와 함께 축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만복사지서 펼쳐지는 역사 추격전

남원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기가 주관하는 생생국가유산사업 ‘뛰어보자 만복 한마당’ ‘런닝맨 환생의 문을 열라’ 체험 행사가 오는 30일 남원 만복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만복사지를 배경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오감상상형 유산 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놀이와 교육을 결합해, 참가자들이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고 감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고전 소설 ‘만복사지포기’의 서사를 현대적인 추격전(런닝맨)과 결합해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

은 소설 속 주인공이 돼 만복사지 곳곳을 누비며 만복사지 보물 5종과 연계된 미션을 해결하는 액션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이 눈으로만 보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뛰어놀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뛰어보자 만복 한마당’ ‘런닝맨 환생의 문을 열라’ 체험 행사는 이번 첫 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또는 주관 단체인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전북원스포츠단 철인3종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아시안게임 국제 선발전서
상위권 성적 기록**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남 양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및 양산시장배 황산 전국 철인3종 대회’에서 전북원스포츠단 남·여 선수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 경쟁력을 입증했다.

먼저 김혜랑(여)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21분56초97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양산시장배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슈퍼 스피린트(수영 300m·사이클 6.67km·달리기 1.75km) 방식으로 양산시장배 대회는 스피린트(수영 750m·사이클 20km·달리기 5km) 코스로 각각 치러졌다.

또 남자부에서도 김지환 선수가 2위를 기록했고, 남기현은 아깝게 4위를 차지했다.

전북원스포츠단 철인3종 남자팀 전병은 감독과 여자팀 김대성 감독은 한목소리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며 “전국체전과 남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체육회>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정수연 작가 초대전 ‘동행’ 개최

**6월 26일까지 회화 작품
140여 점 선봬**

정읍시 생활문화센터가 내달 26일까지 신태인읍 전시실에서 정수연 작가의 회화 작품 140여 점을 선보이는 초대전 ‘동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

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를 이끄는 정수연 작가는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예술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서로 다른 학문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굳게 다져왔다. 전시 주제인 ‘동행’은 인간, 자연, 예

술, 삶이 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뜻한다.

전시장에 걸린 140여 점의 작품에는 해, 달, 산, 사람 등 자연 풍경을 통해 삶의 조화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작가는 자유로운 색채와 다양한 재료를 섞어 쓰며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도화지 위

에 풀어냈다.

생활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삶 속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풍성한 공감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부안군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사전 행사 성료

케이투코리아의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와 부안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장거리 하이킹 프로젝트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2026’ 사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2026’은 자연 속을 함께 걸으며 하이킹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안군과 아이더가 함께 추진하는 국내 대표 하이킹 캠페인이다.

이번 사전 행사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코스 점검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더 관계자, 자원봉사자, 촬영팀 등이 참여해 지난 22일부터 4일간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출발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까지 약 50km에 이르는 구간을 답사했다.

참가자들은 지질명소를 따라 이어지

는 해안길을 걸으며 채석강, 적벽강, 숲섬 등 대표 지질명소와 해안 경관을 체험했으며 특히 최근 절정을 맞은 사스타데이지 군락이 해안 풍경과 어우러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더 관계자는 “변산마실길은 바다와 꽃, 지질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국내 최고 수준의 해안 하이킹 코스”라며 “부안군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거리 하이킹 문화와 지속가능한 아웃도어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2026’ 본 행사는 금년 7월부터 약 3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의 하이커들이 함께하는 서해안 대표 걷기 행사로 운영될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미래를 위한 한 표, 동참하겠습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 공공자전거 명칭 공모’ 736편 응모… 최종 심사 박차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군산시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의 최종 명칭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접수 결과 총 736편의 참신한 명칭들이 응모돼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총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1차 자체 심사를 통해 14편의 후보작을 선정했으며,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단순히 명칭을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사견 컨설팅을 도입해 식별력과 상표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서 최종 3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명칭은 향후 상표권 등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군산시 공공자전거 사업 전반에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공공자전거 명칭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군산의 특색을 잘 살린 이름이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북지방환경청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마쳐

정읍시가 지난 20일 전북지방환경청과 정읍전 일대 홍수 취약지역의 안전을 점검하고,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잦은 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손연국 정읍시 도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비상 연락망, 주민 대피 계획 등 전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두루 점검했다.

현장 점검이 끝난 뒤에는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정읍에서 생산한 판급 자재와 지역 건설 장비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 장비의 참여를 늘리고 판급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월명공원 수변데크 새 단장 “안전과 힐링 동시에”

군산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월명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월명공원 동수립본 수변데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때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의 노후 수변데크를 정비해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침수로 인한 데크 뒤틀림과 부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바닥 기둥 부식과 이음부 이탈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데크를 철거하고, 연장 107m, 폭 2.5m 규모의 수변데크를 새롭게 설치했다.

주요 구간은 장마철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데크 높이를 높여 시공했으며, 침수가 불가피한 일부 구간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세라믹 데크를 적용했다. 또한 데크 폭을 넓히고 경사를 완화해 보행자료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2.7km에 이르는 월명호수 산책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돼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서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교통·수질 관리 강화 2(題)

남산 장암사거리 교통환경 개선

익산시가 남산면 장암사를 앞 사거리의 차량 흐름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남산 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전교차로 설치와 함께 도로교통공단과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안전시설물과 표지판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회전교차로가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충돌 위험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역 교통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운전자 시야 확보와 교차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보다 안전한 통행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3개소 추가 설치

익산시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과 효율적 수질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측정망 3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수위 변동, 수질 변화, 수온 고갈 여부 등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이다. 측정된 데이터는 무선통신망을 통해 전송돼 하수 오염 및 고갈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지하수는 구분별 사용이나 관리 부재 시 물 부족,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보조측정망을 기존 44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재난 대응 성과… 대통령 표창 수상

인프라 확충 및 철저한 사전 대비 노력 인정

군산시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단 한건의 인명피해 없이 재난에 대응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시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확충, 우수저류조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또한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급경사

지, 산사태 위험지역, 대형 공사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정비 등 사전 안전관리를 집중 실시해 왔다.

지난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군산시는 기상 특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는 등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경찰, 군부대,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가동한 결과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군산시의 안전 인프라 투자, 사전 대비, 민·관·군 협력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과 함께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은 재난 대응 실무를 총괄하며 선제적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청사, 전국서 벤치마킹

지자체 방문 이어져… 공간 운영 사례 등 견학

익산시 신청사가 시민친화형 청사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청사 건립을 준비 중인 전국 지자체들의 견학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과 경북 상주시, 경기 여주시, 전남 순천시·장흥군, 충북 옥천군, 충남 서산시 등은 익산을 방문해 신청사 건립 과정과 공간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일부 지자체는 공간 활용과 운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방문하기도 했다.

익산시 신청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관공서의 틀을 넘어 행정·휴

식·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시민친화형 청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사 내부에는 민원실과 부서 배치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시민 이동 동선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과 시민동아리방, 시민정보화교육장,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옛 청사 철거 부지에는 꽃 정원과 열린 광장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여기에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와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익산의 정체성과 도시 이미지를 담아낸 신청사의 상징성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체류·생활인구 공약 발표

복합컨벤션 건립 등 8가지 공약 제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지역발전 정책 공약 여덟 번째로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통한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인구가 매년 줄고 지속적인 감소세가 있는 만큼 외부 인구의 지역내 체류 또는 생활하는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감안,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인구 유입 정책을 수립해 8개 방향의 공약 중 마지막 순서로 ‘체류·생활인구 분야’에 대한 세부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내 예식장이 없어서 외지로 나가 결혼식을 치르는 상황에서 예식 기능을 갖춘 복합컨벤션 건립

으로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정읍 웨케이션 센터 건립으로 외지 인구의 체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반려동물 행복 공유공간 조성을 추진해 정읍에 연고를 두고 머무는 체류 및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부 실행계획으로 △예식 기능을 갖춘 복합컨벤션 건립 △여러 가지 체류형 건강마을 조성(지역 활력타운) △한국가요촌 워킹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KTX연계 광역 출퇴근 청년 교통비 지급 △반려동물 행복 놀이동산 조성 △생애주기 복지통합 안내 서비스 고도화 △정읍 ‘달라’ 웨케이션 센터 건립 △정읍 생활체육 리그 활성화 등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예식장 기능을 갖춘 복합컨벤션 건립’은 “지역내 예식장 및 대형 컨벤션이 미비해 타지 예식으로 지역 재

화 유출 및 대형 행사 유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예식 기능 갖춘 복합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예식은 물론 대형 행사 유치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에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또한 ‘에너지 자립 체류형 건강마을 조성’은 “정읍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주거시설, 건강, 일자리를 겸비한 건강 특화 마을을 구축해 은퇴 가구 및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 농촌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이학수 후보의 ‘정책 공약 8’은 지난 11일 가진 ‘이학수의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후 주 단위로 분야별 세부정책 공약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화재·배상보험료 지원… 2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화재·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가입한 화재·배상보험료의 70%(기업당 최대 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가입 보험뿐

아니라 신청기간 내 신규 가입한 보험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험 미가입 기업들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화재나 각종 사고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가입한 화재·배상보험료의 70%(기업당 최대 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가입 보험뿐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안전한국훈련 성료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 점검

정읍시가 지난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과 용산저수지 일대에서 19개 유관 기관 소속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와 저수지 붕괴를 가정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대행인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토론 훈련이 열렸다. 이들은 재난 상황 접수부터 현장 연락관 파견, 단계별 상황 판단 회의 등을 차례로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대책본부와 현장 사이의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과 용

산저수지 일원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 권한대행인 손연국 도시안전국장이 현장 훈련을 지휘했다. 정읍시를 포함해 순창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9개 기관 소속 300여 명이 투입됐다.

참가자들은 자체 소방대의 초기 대응을 시작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꾸렸다. 이어 인명 구조, 부상자 이송, 합동 상황 판단 회의 등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 전반을 살폈다.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는 재난복구 지원본부 운영과 기관 간 지휘권 연계 절차까지 거치며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마쳤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시, 국비 확보 선제 대응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마감 앞두고 국회를 직접 찾아 핵심 현안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2일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이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기후에너지·저수지·전문위원, 예결위 의원실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2027년도 국비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담 말 중앙부처의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이후 기획예산처 심의, 국회 예산 심의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부처 편성 단계가 확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이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군산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5억원) △군산시 물순환 축진구역 지정(297억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71.8억원) △군산시 김산읍 진흥구역 지정(25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국장은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위원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두는 것이 사업 반영의 핵심”이라며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국회와 부처를 병행 공략하는 투트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방치 자전거 집중 정비

익산시가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정비해 폐자전거 160여 대를 수거했다

고 이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자전거로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녹색교통만들기 사업’으로 수리한 재생자전거 40대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기증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자전거 보관소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서해안 철도 건설 등 61개 핵심사업 점검 전방위적 대응 돌입

부안군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국·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2028년 국가예산 및 2026년 공모사업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에 대응하고,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신규사업의 부처 반영 가능성과 대응 논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안의 지도를 바꿀 대형 인프라 사업부터 주민 체감형

공모사업까지 총 61건의 사업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중 국가예산 사업은 15건, 공모사업은 46건이다.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 정비사업 △가력항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는 △ESG 메디컬 상생지원센터 조성사업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출포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매창 문화광장 조성사업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핵심 공모사업으로 꼽히는 'ESG 메디컬 상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출포만 블루카본 생태지원과 원광대학교 한방 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체류형 생태치유 거점 조성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ESG 치유공간을 조

성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의 예산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해 부처 예산안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준비한 사업들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부처 예산안이 편성·마무리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처 단계부터 예산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청 앞 멸구슬나무 꽃 '만개'

도심 속 향기로운 휴식처

전북 고창군청 앞 멸구슬나무가 올해도 연보라빛 꽃을 활짝 피워내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청 앞 멸구슬나무 꽃이 만개하면서 그윽한 꽃 향기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매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북쪽에 있는 '고창 교촌리 멸구슬나무(천연기념물 503호)'는 수령 200년에 높이는 14m이고,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둘레는 4.1m에 달한다.

특히 5~6월 가지의 끝에서 원주화서(圓錐花序, 원뿔모양의 꽃)가 나오며 연보라빛 꽃이 핀다. 꽃이 필 때 나무에서 뿜어내는 은은한

향기는 명품브랜드의 향수 못지않은 은은하고 달콤한 향을 퍼뜨리며 찬사를 받는다.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또한, 여름에 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모기나 잠벌레가 달려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상의 동물이자 신성의 동물인 해태가 멸구슬나무 앞만 먹는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도시 한 중심에 뿌리내린 고목은 이른 무더위에 지친 군민과 방문객들의 시원하고 향기로운 휴식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창 멸구슬나무의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상수도 현대화... 우수율 '개선'

수돗물 손실량 감소 안정적 물 공급 기반 마련

김제시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누수 저감 등을 위한 상수도 1차 현대화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우수율이 크게 개선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관로 교체, 불특정 수량·수량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누수를 줄이고 상수도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현재 1차 현대화사업은 완료, 2차·3차 현대화 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차(김제 동지역 일원) 현대화사업 추진 전 김제시의 우수율은 67% 수준이었으나, 현대화사업 완료 이후 최종 성과관정 우수율이 93.3%까지 개선돼 수돗물 손실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72만 톤의 수돗물이 절감되고, 약 35억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누수 저감과 수압 안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기후변화와 가뭄 등 불확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관로 정비를 넘어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망 관리를 통해 우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세만금 지역에도 안정적인 물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 "일자리 허브 도약"

도·농상생 특화사업선정 일자리 선순환 지원

고창군로컬JOB센터가 '2026년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지원 추가 특화사업(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 주관)'에 선정돼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관외 구직자 유입,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 지역 기업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일자리 선순환 종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고창군 일자리 환경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3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유입(고창 정착 올인원(All In one)

패키지)=타 지역 구직자가 고창군 내 중소기업 취업으로 인해 고창시 이주비용지원(최대 150만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최대 200만원)과 채용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최대 400만원)을 원스톱으로 지원.

△정착(고창 재직 근로자를 위한 리프레쉬(Refresh)=고창군 관내 중소기업(3인~50인미만)에 근무 중인 기업 핵심 인재들의 정착을 받아 입사기간(1년 30만원, 3년 50만원, 5년 70만원)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총 42명(1년이상 14명, 3년이상 14명, 5년이상 14명)의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

△성장(고창 운영기업 거러져 판로 개척)=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으로 판

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스토어 구축,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500만원 지원. '기업의 매출 증대→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고창군 로컬JOB센터 양치영 센터장은 "관외 구직자에게는 '매력적인 일자리와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관내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성공적인 맞춤형 고용모델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이달하순에 순차적으로 참여 대상자(기업, 구직자, 입사자)들의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고창도 수색으로 변호판 영치 성과

김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관외 지역을 넘나드는 고창도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세정과는 지난 3월 마지막 주부터 관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표적 영치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는 시 관할 구역에 벗어나 타 시·도에 주소나 거점을 두고 운행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해 온 고질 체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 체납 차량 영치반은 데이터 분석과 차량 이동 경로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타깃 차량을 선정해 후, 전국을 무대 로 현장 단속을 감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부터 전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를 폭넓게 아우르는 저인망식 추적으로 진행됐다. 시 영치반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대상지를 샅샅이 수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변호판을 즉각 영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변호판을 영치한 대상자들의 조세채권은 무려 4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관외로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변산면 '장학금 1군민 1후원' 홍보

부안군 변산면은 지난 21일 부안군 근농민재육성재단과 함께 '장학금 1군민 1후원' 캠페인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홍보에 나섰다

'1군민 1후원' 캠페인은 군민 누구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후원하는 방식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함께 조성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변산면사무소 직원들은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직원들은 장학사업의 필요성과 정기후원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지역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정우 변산면장은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학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및 농가 점검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이 지난 22일 흥덕면과 성내면 일원에서 폭염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무더위쉼터의 냉방기기의 작동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음용수·응급약품 비치 △여름철 영농작업 안전관리 △폭염 5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폭염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과 영농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무더위쉼터 이용환경과 농작업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일상생활과 야외활동 중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이번 현장점검 외에도 폭염여객시설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승강장, 파고라 등을 정비하고 주민 밀착형 양심냉장고 운영을 준비하는 등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누구나 무더위쉼터에서 편안하게 쉬 수 있고, 영농활동 등 야외활동 중에도 여름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금동마을협동조합' 28일 창립총회 개최

김제시는 금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금동마을협동조합'이 오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금동마을협동조합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금동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민 주도형 조직이다.

조합은 마을방앗간과 마을목공소 운영을 비롯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이용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동마을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정관 제정을 완료했으며,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완 도시과장은 "금동마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창립총회로 주민들의 열정과 협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힘써준 모든 관계자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한국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 폐농약병·봉지 분리수거 활동

한국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회장 김현자)가 지난 21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폐농약병 및 폐농약봉지 분리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고창군 내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된 폐농약 용기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분류 및 집하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합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환경보호 실천 활동이다.

올해 수거된 폐농약병 및 봉지의 총량은 약 10톤으로, 지난해 9.8톤에 비해 0.2톤 증가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정읍사업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특히 수거 활동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의 일부는 고창 지역 장학재단에 기탁할 예정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자 회장은 "매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산림 치유프로그램 성료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치매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상자 및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 익산 치유의숲과 익산 아가페 정원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한 산림 치유 및 야외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자연 친화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활동에는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가족교실 참여자 및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국립 익산 치유의 숲에서 숲길 걷기 체험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익산 아가페 정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이번 힐링 나들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지역 안전 강화 나서

자율방재단·자원봉사센터 통합 협력 체계 가동

부안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두 기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출동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부안군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규태)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규)는 지난 22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와 방재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정식 체결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처와 체계적인 자원봉사 인력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의 개별적인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긴밀한 통합 협력 체계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의 신속한 모집·배치 및 현장 운영 지원 △이재민 구조 및 피호소 운영 보조, 생활 지원 연계 △재난 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방침이다.

김규태 부안군지역자율방재단장은 "이번 협약은 방재단이 가진 현장의 전문성과 자원봉사센터의 총출동 인력 네트워크가 결합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 지역 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정흥규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의 소중한 자원봉사 역량을 재난 안전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돼 든든하다"라며 "주민이 주도해 스스로 일터와 살터를 지키는 건강하고 자생적인 안전 공동체를 부안군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두 기관은 서약에만 그치는 협약이 아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재난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즉시 정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기적인 합동 재난 모의 훈련과 단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추진해 부안군의 재난 안전지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민주당 완주 후보들, 장날 연합유세 ‘총출동’

23일 삼례장날 연합집중유세전
박주민·이원택·유희태 총집결
“완주발전 전북대도약”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완주지역 후보들이 지난 23일 삼례장날을 맞아 삼례시장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연합집중유세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유세에는 ‘오쪽 유세단’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의원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도·군의원 후보들이 총출동해 민주당 원탑 결집과 지방선거 승리를 호소했다.

특히 장날을 맞아 많은 군민들이 현장을 찾은 가운데,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하나된 힘! 전북 대도약”을 외치며 완주 발전과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로 뭉쳤다”며 “지역경제 회



<사진=민주당 전북도당>

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역시 “완주군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힘 있는 여당·민주당 원탑이 필요하다”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는 “삼례장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군

민과 함께 더 큰 완주, 더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도·군의원 후보들도 함께 자리해 원탑 행보를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산단 랜드마크 조성 밑그림 구체화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433억 투입 문화거점 조성

완주군이 완주산업단지의 새로운 상징이자 문화·경제 거점이 될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등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경제성 과 세부 공간 배치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으며 시설별 기본계획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전략은 랜드마크 조성과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통합 추진이다. 당초 청년

문화센터 대상지였던 옛 청원초등학교 건물이 구조 안전진단에서 D등급(사용제한고려)을 받음에 따라, 완주군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병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병합 추진을 통해 중복 공간과 공용 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약 4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둬왔으며, 주차장 등 필수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했다.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33억 7,000만원(국비 249억 원, 도비 47억 6,000만 원, 군비 137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봉동읍 재내리 129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면적 9,325㎡)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중앙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11월 착공, 203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다움관, 시민기록가 기획전 옥션·영춘마을 어르신 이야기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끝에서 피어난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이 청년들의 다정한 시선과 만나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진다.

남원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남원다움관에서 기획전시 ‘나의 마을 [말·글] - 마을을 그리다, 삶을 기록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억과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원다움관과 시민기록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시민기록가들이 함께 대강면 옥전마을, 주생면 영춘마을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을의 기억에 귀를 기울였다.

채록된 진솔한 이야기들은 남원다움관의 체험 프로그램인 ‘오마주 나의 남원’과 연계되어 따뜻한 색채의 그림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전시의 주인공인 이 그림들은 남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3명의 청년 여성 작가들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전시장에서는 대강면 옥전마을과 주생면 영춘마을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구술사연과 그림이 나란히 걸려 관람객의 흥미를 끈다. 아울러 수지연 산촌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현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남원다움관에 들러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교감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인도 정비 ‘속도’...시민 보행안전 강화

시청남로 정비 7월 말까지 진행

남원시가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해 인도가 들뜨거나 파손된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인도에서 가로수 뿌리가 포장면을 밀어 올리면서 보도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해왔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 하반기 큰들길(도동우체국 일원)을 우선 정비구간으로 선정해 가로수 뿌리를 정리하고 노후 인도 포장을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전면 보수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방뜰길(후면시아 일원)과 용성로(농협 도동지점 일원)의 일부 변형 구간에는 부분 보수를 우선 시행하며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청남로(중로2-8) 인도정비사업’은 지난 4월 30일 시작해 오는 7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과 시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통행 방식으로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도로 통행제한(일부) 고시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우회도로 지정·안내 등 교통대책도 함께 가동 중이다.

시는 가로수 뿌리 정비뿐만 아니라 학교거리와 춘향로-시청남로 교차로의 차선 조정 및 가각부 정비도 완료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전북연구원, 수소·AI 육성 머리 맞대

지역 현안해법 모색 정책간담회

완주군은 최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군 주요 정책사업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상호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완주군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10여명의 간부공무원과 전북연구원 김보국 부원장 등 연구위원 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 디지털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수소소수 부장 특화단지 조성 △완주군 디지털

AI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완주문화관광재단 기능 강화 △만경강 주변 경관지구 조성사업(대표축제 연계) △전라선(익산-여수) KTX 삼례역 정차 건의 등 총 6건이다.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수소소수부장 특화단지 조성 전략 방향을 집중 논의했으며, 최근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AI 분야에 대해 이서면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1조원 규모 디지털AI 사업의 유치를 통해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AI 특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스마트팜 코리아’ 참가 귀농귀촌 홍보전

임시거주 등 특화정책 지원 소개
선배 귀농인 1대 맞춤형 상담 운영

남원시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장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해 남원시의 귀농·귀촌 정책 홍보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 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남원시의 농업 인프라를 알리는 한편, 영농 준비부터 지역 융화까지 아우르는 정착 시스템을 다각도로 선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 운영부터, 현장 중심의 생생한 영농 실습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따뜻한 상생 화합을 이끄는 동아리 및 재능기부단 지원까지 남원시만의 정착 케어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망설였던 귀농 희망자들을 위해, 농촌에 먼저 안정적으로 정착한 베테랑 귀농인들이 직접 상담해 준다. 작물 선정부터 토지 매입, 주거지 마

련 등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남원시가 구축한 농업 인프라와 든든한 주거·교육 지원 시스템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남원에 발을 디딘 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농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속 있는 정착 케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 실랜드, ‘K-웰니스’ 관광 자원 홍보 나서

aT센터 푸드·투어 박람회 참가
발효테마파크·강천산 등 홍보

우수 웰니스 관광지인 순창군 실랜드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에 참가해 순창 발효관광재단과 함께 순창 관광자원 홍보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6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는 웰빙과 건강, 행복을 주제로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 농축수산물 자원과 웰니스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국의 웰니스 관광지와 지자체, 유관 기관, 협회 등이 참여해 다양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 실랜드는 순창발효관광재단과 협력해 전북 대표 K-웰니스 도시인 순창의 관광자원을 집중 소개했다. 발효테마파크를 비롯해 경천·양지천 낚시, 강천산 군립공원 등 순창의



<사진=순창군>

대표 관광지를 알리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현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며 미니 고추장과 발효미생물 캐리커를 활용한 순창 굿즈를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2026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제2회 순창장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방향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상품도 적극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순창=박지현 기자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순창 하면 고추장만 떠올렸는데 발효를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와 자연경관이 다양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방문해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랜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이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촌소멸 대응 ‘10년 청사진’ 본격화

농촌공간재구조화 용역 착수
특화지구 지정·체계적 개발 추진

완주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난개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관련 부서장, 행정협의회 36개 팀장, 용역 수행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처 간 협력 체계와 장기 로드맵을 전격 점검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

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완주군 농촌 지역 전체(13개 읍·면, 234km)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7~2036년)의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법적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거 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적 서비스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운영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농촌협약 등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규모 국비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완주군 농촌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의료취약층 ‘찾아가는 조기 치매검진’

순창군이 의료급여 특화사업의 하나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조기 치매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1,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기 검진 대상인 60~7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87명이다.

순창읍 거주 수급권자 114명은 우선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방문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면 지역에서는 기존 치매 진단자와 올해 치매검진을 완료한 대상자를 제외와 236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 중이다.

검진은 순창군청 의료급여관리사와 보건의료원 치매예방팀 전문인력이 2인 1조를 구성해 대상자의 가정과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1대1 맞춤형 치매 선별검사(CIST)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의심 증상이 확인된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정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매 확진 시에는 치매환자 등록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진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약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관내 10개 면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미취학 아동 양치 습관 ‘치카포카’ 사진 공모전

완주군이 제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양치 습관 형성을 위한 ‘치카포카! 깨끗한 치아 사진 뽀내기’ 사진 공모전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칫솔질을 즐겁게 실천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구강건강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완주군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이며,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참여 방법은 칫솔질하는 모습 사진 1장과 양치 후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해 완주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공무직지부, 장수군시민연대에 후원금 전달

장수군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공무직지부(지부장 윤동수)가 장수군 시민연대(상임대표 최영호)에 후원금 323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장수군 어린이들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로봇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것과 관련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지역 학생들의 꿈과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동수 지부장을 비롯한 공무직지부 조합원들은 장수군 어린이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윤동수 지부장은 "장수군 어린이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당당히 도전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조합원들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대회에서도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영호 대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공무직지부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응원에 힘입어 세계대회에서 값진 경험을 쌓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합동 정화활동 펼쳐

진안군이 용담호 수질 보전과 깨끗한 수자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용담호 수질개선행 의회와 함께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담호 상류인 상전면 일대에서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진안고원시장 앞 진안건강원에서 진안을 파출소 주변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부유쓰레기와 하천변 오염물질 약 1톤을 수거했다. 군은 이번 활동이 용담호의 실질적인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42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용담호 수질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와 하천 오염행위 집중 감시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환경정비와 감시 활동을 통해 용담호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청소년유해환경 민간합동 점검·단속 실시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2일 저녁 진안읍 생활주변 및 변화가 일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안경찰서, 진안 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참여기관은 오후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변화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점검 △ 술·담배 판매행위 단속 △ 음주흡연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임실, 안정적 영농 기반 조성

무주군,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 배정

5억까지금리 1.5% 지원

무주군이 '2026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가구당 총 대출한도 5억원 범위(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기존 대출금액을 제외한 잔여 가능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5~2026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선정자로, 신규 배정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으로 배정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의 필요 자료를 함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배정자의 자금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 신청 접수는 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연장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기존 제출자료의 수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황재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농지 구매는 물론,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설치, 비료나 농기계 구매 등의 운영자금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이 청년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전략작물 직불제 마감 임박

5월 29일 신청 마감

임실군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전략작물 직불제 하계작물' 신청 접수가 오는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체 접수율은 96%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서둘러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비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업 e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계작물 신청 대상 품목은 두류와 가루쌀, 옥수수, 깨, 하계 조식료를 비롯해 알팔파, 수수, 울무, 수급조질용 벼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과 신규 품목 확대가 이뤄지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계 옥수수와 깨는 기존 ha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됐으며, 하계 조식료 역시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감사원과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박원균 감사원 부감사관 초청 공직자 150여명 대상 적극행정지원 제도 교육

장수군은 지난 21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감사원과 '2026년도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원의 박원균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부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군청 직원과 소속기관 직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 등 적극행정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공유했다.

적극행정지원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은 적극행정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물론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고민까지 나누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책임감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규정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성료

4억6천만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2026년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무주 등나무운동장과 적상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무주군체육회가 주최·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3일간 전국 48개 유소년 축구팀(초등학교 2학년~6학년) 선수 650명을 비롯해 지

도자와 학부모 등 1천9백여 명이 무주를 찾아 성황을 이뤘다.

선수들은 학년별로 조별 예선과 준결승·결승 경기를 치렀으며 학년별 1위 팀에게는 우승컵과 축구공 등이 수여됐다.

박영석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장은 "유소년 대회는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가족, 지도자 등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대회도 방

문객들의 발길이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관광지로 이어지며 4억 6천여만 원의 체류형 관광과 지역 소비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소년 대회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유소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무주가 스포츠 관광 군으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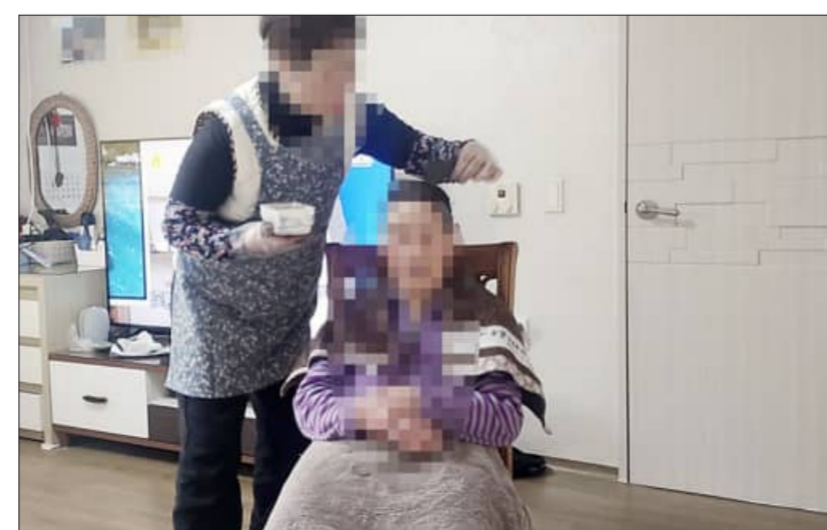
임실 사랑요양원, 뇌출혈 어르신 생명 구해

위기 상황 신속 대처

사랑요양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지난 19일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인 이** 어르신은 평소 회관에 자주 나오시는 어르신이다. 그런데 '전일부터 회관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에 대한 건강을 염려한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맥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던 중, 어르신이 방 안에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이불은 소변으로 젖어 있었고, 어르신은 침대에서 소변매트를 덮은 채 누워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흐린 상태였다. 생활지원사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인 아들과 연락을 취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조치했다.

병원 진료 결과 어르신은 뇌출혈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곧바로 응급수술이 진행됐다. 보호자는 "생활지원사의 빠른 발견과 병원 이송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생활지원사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세심한 현장 대응이 아니었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실시

오는 10월까지 무료 시행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오는 10월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C형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으로 주사기 공유 또는 재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 접촉 등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 간경변 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검사는 C형간염 확진자 가

족, 과거 혈액제제 수혈 및 주사기 공유 사용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 저하자, HIV 감염인, 50대 이상 검사 희망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으나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하지만 감염자의 70%가 증상을 느끼지 못해 간암으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검사가 필수적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C형간염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만큼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지역 특색 담은 답례품 발굴

제13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13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제안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기존 답례품의 품질 관리 현황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진안군과의 연관성 및

지역 대표성 △기부자 선호도 및 상품의 매력도 △공급 업체의 안정성 및 품질 관리 역량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핵심 평가 지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진안군의 답례품은 45개 품목 130개 답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대표 특산물인 홍삼 등 전통적인 인기 품목 외에도 MZ 세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맥반석 계란, 홍삼이 첨가된 즉석밥, 매추리알 장조림, 휴대용 더치커피 애플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매립장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현장 중심 실질적 안전 관리

임실군은 지난 14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에서 근무하는 20여명의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립장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매립장 내 작업 안전 수칙 △하절기 대비 열질환 예방 및 보건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등

으로 구성됐다.

또한, 폐기물 처리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함께 임실군은 매립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립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4건의 시설 안전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러한 정기적인 교육과 선제적인 시설 투자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실천을 유도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임실'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예비 창업농 실무 역량 강화

농산물중합가공센터서 식품가공실습 진행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진안군농산물중합가공센터에서 '2026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식품가공실습을 진행하며 예비 창업농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실습은 총 10회 과정으로 구성된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의 7회차 교육으로, 교육생들이 그동안 익힌 가공 이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보며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2026년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는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 창업을 준비하는 관내 중소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농식품 산업의 이해부터 가공식품 인허가, 제품 개발, 위생 안전,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창업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다.

교육생들은 이날 농산물중합가공센터 가공실에서 직접 식품 가공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 감각을 익혔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기기와 시설을 이용해 구현해 봄으로써, 가공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내 농산물의 제품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금동 갈비분가, 9개월간의 갈비탕 나눔 마무리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지난 20일 금동 14동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갈비탕 나눔 행사 '사랑듬뿍데이'를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이어온 관내 경로당 순회 나눔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금동 9개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된 이 나눔 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안심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성껏 준비된 갈비탕을 대접받은 한 어르신은 "경로당까지 직접 찾아와 따뜻한 갈비탕을 대접해 준 덕분에 몸도 마음도 큰 힘이 됐다"라며 후원자와 행정복지센터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갈비분가 한상용 대표는 "금동 관내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큰 보람과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 신평동 '이누스바스', 착한가게 가입

군산시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는 지난 22일 육식 인테리어 전문업체 '이누스바스'(대표 김범승)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착한가게에 가입한 이누스바스는 앞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누스바스는 타일 시공, 미장, 방수 등 다양한 육식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고객 맞춤형 시공과 꼼꼼한 사후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김범승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업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주 한일섬유, 취약계층에 러닝셔츠 1,800장 기부

어르신들 여름나기 보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지난 22일 한일섬유(대표 한춘자)가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러닝셔츠 1,8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부 물품은 대한노인회 전북지부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춘자 한일섬유 대표는 "여름철에는 얇고 편안한 의류 한 벌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며 "한일섬유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섬유는 전주 소재 섬유가공 생산업체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춘자 대표는 2023년부터 면 마스크 10만 장 이상을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도 전달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8월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



예대장을 수상했다.

/김은지 기자



고창 성내면 주민행복센터, 가지 농가 일손돕기 나서

고창군 성내면(면장 이남례)이 지난 21일 가지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성내면 직원 10여 명은 성내면 내도마을에서 가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수확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 영농 지원 활동에 나섰다.

농가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해 올해 농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밭 밟고 도와줘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남례 성내면장은 "농번기에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인데 인력 부족으로 농작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며 "행정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자 군민 행복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주근영중, 프랑스 학교 초청 '국제교류' 진행

수교 140주년 맞아 상호 답방

전주근영중학교는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라퐁텐데프레 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한·프 수교 140주년 기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전주근영중 학생들의 프랑스 방문에 이은 상호 답방 일정이다. 라퐁텐데프레 중학교 학생들은 직접 전주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

한다. 핵심 일정인 국제 공동수업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프 수교 140년, 역사로 만난 우리, 미래를 잇는 시민'을 주제로 진행되며, 양국 학생들은 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시민의 역할을 탐구하고 전주 일대에서 체험활동에 나선다.

조은경 전주근영중 수석교사는 "단순한 교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역사 속 연대의 의미를 현재의 삶과 연결하는 세계시민교육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완주 비봉면지사협, 할아버지 반찬교실

완주군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쇠철, 김미영)는 최근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 반찬교실' 3회차 수업을 진행했다.

반찬교실 수업은 홀로 생활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반찬을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서로 안부를 나누고 정서적 관계

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업에서는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육볶음과 멸치볶음을 함께 만들었다.

참여 어르신들은 재료 손질부터 양념 만들기, 조리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며 "집에서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조리도구를 잡는게 익숙해졌다"는 소감을 남겼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운주면 적십자봉사회, 이불 세탁 봉사

완주군 적십자봉사회와 운주면 적십자봉사회가 최근 관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빨래 봉사를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동세탁 봉사활동은 전북 적십자 이동세탁차량을 지원받아 운주면 관내 경로당 및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이날 적십자 회원 15여 명이 참여해 각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불과 담요 등

을 수거했다. 이후 이동세탁차량에 설치된 세탁기와 건조기를 활용해 세탁과 건조 작업을 마친 뒤 깨끗하게 정리해 다시 전달했다.

회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총 130여 채의 이불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했다. 특히 대형 이불이나 담요 등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직접 세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봉사활동이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금마면 지역 나눔 확산, '모퉁이부엌'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착한가게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 확산에 힘을 보탬다.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구·전영선)는 지난 21일 '모퉁이부엌(대표 최선안)'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마면에 있는 모퉁이부엌은 돈까스와 오므라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맛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맛집이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중심 기부 캠페인이다.

최선안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교통사고 예방수칙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전좌석 안전띠 사용



졸음 운전 금지



과속 운전 금지



안전거리 확보

〈一事一言〉



“커피 나오셨습니다”의 시대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편리함과 친절 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언어의 품위

언어는 살아 움직인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의 변화 앞에서 묘한 어색함을 느끼곤 한다. 식당에서 흔히 듣는 “고객님, 말씀 주신 자장면 나오셨습니다”라는 표현도 그렇다. 듣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어디선가 자꾸 걸린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장면”보다 “짜장면”이 더 입에 붙는다고 말한다. 원래 표기법상으로는 자장면이 맞고 배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 짜장면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이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사람들은 자장면이라는 표현을 어색해했다. 결국 국립국어원도 현실 언어생활을 인정해 두 표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는 규칙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살아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말씀하신 자장면 나왔습니다” 정도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어느새 “말씀 주신 자장면 나오셨습니다”가 되었다. 주문한 음식에까지 존칭을 붙이는 표현은 이제 낯설지 않다. 커피가 “나오셨고”, 빵도 “준비되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사물까지 무조건 높이는 것이 과연 예의일까. 존칭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지, 모든 대상에 붙이는 장식은 아니다.

생각해 보면 언어의 변화는 세대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한때 전라도의 “거시기”, “머시기” 같은 말에는 놀라운 공동체적 감각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듣는 생활의 호흡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신 영어와 한글을 섞은 줄임말, 문장 앞부분만 떼어 만든 신조어들이 빠르게 생겨났다 또 금세 사라진다. 유행은 빠르지만 생명력은 짧다.

그 변화 속에서 언어적 소외감을 느끼는 세대가 적지 않다. 중년층은 젊은 세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어렵게 익혀서 보아도 오히려 어색하다는 반응을 듣기 쉽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고사성어나 점잖은 표현을 쓰면 “꼰대 같다”고 말한다. 언어가 세대를 구분하는 작은 울타리가 되어가는 셈이다.

요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자주 듣는 표현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다.

질문이 무엇이든 마지막은 대개 “것 같습니다”로 끝난다. 물론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뒤로 숨기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아름답다”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분명하고 힘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태도 또한 언어의 중요한 역할이다.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가장 위대한 공동체의 기술이다. 말 한마디에는 그 사회의 감각과 태도, 세대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지는 일 자체를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변화 속에서도 말의 정확함과 마음의 진정성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같은 어색한 존칭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언어에 가깝다.

오늘의시

거룩한 사랑 / 박노해

성은 피과 능이다 어린 시절 방학때마다 서울서 교학하던 형님이 허약해져 내려오면	떨면서 침을 꿀꺽 하면서 그 살생을 지켜보았다	더 맛있는 김치와 국을 맛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의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
어머님은 애지중지 길러온 안팎을 잡으셨다 성호를 그은 뒤 손수 닭 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피를 묻혀 가며 맛난 닭죽을 끓여셨다	서울 달동네 단칸방 시절에 우리는 김치를 담가 먹음 여유가 없었다 막일 다녀오신 어머니는 지친 그 몸으로 시장에 나가 잠깐 야채를 다듬어 주고 시래깃감을 얻어와 김치를 담고 국을 끓였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나는 갈질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 퍼런 배추 겉잎으로 만든 것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주경야독으로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해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하다 1991년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1998년 7년 6개월의 감옥생활 끝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됐다. 2025년 사진전 '산빛'을 전시했다.

사설

기본소득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농촌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전북 순창과 장수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구 유입이 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증가했으며, 지급된 지원금 상당수가 지역 안에서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라져가던 면 단위 상권에 다시 사람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현실을 생각하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 농촌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에 놓여 있다. 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되고, 상가는 문을 닫고 병원과 교통망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사람이 떠나면 소비가 사라지고, 소비가 사라지면 일자리와 생활 기반도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 순환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실험에 가깝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도 있다. 기본소득이 일시적 소비 증가에만 머문다면 결

국 ‘잠깐 돈 들고 끝나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크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지역 정착과 일자리, 청년 유입, 생활 인프라 유지로 이어지는지, 실제 전입 인구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폐업 위기 상권이 살아나는지, 지역 학교와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도 함께 가야 한다. 정치적 인기 정책으로 소비된다면 결국 지역사회에 더 큰 실망만 남길 수도 있다.

농촌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장수와 순창의 실험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 시대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중요한 것은 돈을 나눠주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독자투고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따뜻해야 할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폭언, 협박, 경제적 통제, 반복적인 무시와 같은 정서적 학대 역시 명백한 폭력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은 “참고 살아야 한다”, “아이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성과 은밀성에 있다. 한 번의 폭력은 끝나지 않고 점차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은 불안, 우울,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결국 가정폭력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이다. 이웃의 작은 신고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남의 집 일”이라며 외면하기보다,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상담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야 아니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침묵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이다.

가정의 평온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자리잡을 때 우리 사회 역시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은화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영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승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광교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무주산골영화제'라 쓰고 '초여름 낭만·휴양 영화제'라고 읽는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

존재만으로도 특별함을 전하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자연, 휴식, 영화'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무주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낼 이번 영화제는 '확대'와 '확장'을 통한 '변화'를 예고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크게, 더 넓게'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지난해 영화제 기간 축소로 컸던 아쉬움이 다시 기대로 바뀌고 있다.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으로, 기간 연장은 상영 편수와 회차 등 규모의 '확대'는 물론, 상영 공간과 예약시스템, 편의 서비스 전반의 '확장'을 부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했다.

상영작은 총 27개국 90편(국내 39편, 해외 51편)으로, 실내 상영은 20~30대 여성 관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영화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상영관(무주군민의 집, 무주상상반디숲)과 상영 회차도 20회차 내외로 확대했다. 야외 상영은 모든 연령대가 영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덕유산국립공원에서 35mm 필름 영화를 상영하는 등 각 장소의 특성을 살린 공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3무(無) 축제'로

특히 '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의 원조다운 면모로 올해도 관객 편의 확보에 힘쓴다. 무주 덕유산리조트 숙박과 등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을 결합한 '숙박패키지'를 운영하며, '시의 셔틀버스'는 예약제(티머니 GO)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덕유산 국립공원 대접회장 셔틀버스'는 무주관광안내소에서 대접회장까지 왕복 운행(왕복 5천 원)한다.

아울러 안전한 영화제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또한 간식 부스는 지난해보다 2곳 더 마련(총 10곳)해 먹는 즐거움까지 배가시킬 예정이다. 다화용기(6종)를 의무적으로 사

용해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또한 모든 메뉴는 1만 원 이하여서 입도, 주머니도 즐거운 영화제 즐기기가 가능하다.

새로운 시선이 남긴 특별한 영화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부문 상영작은 9편이다. 영화제 측은 총 110편의 출품작 중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선정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특별한 스타일과 정제된 형식으로 풀어낸 이재한 감독의 <다른 이름으로>와 이원영 감독의 <미명>, △강과 인간, 지역 공동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낸 김정원 감독의 <별과 모래>, △밝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유재욱 감독의 <산양들>, △신혼부부의 현실적인 고민을 그려낸 소성섭 감독의 장편 데뷔작 <잠 못 이루는 밤>이 관객을 기다린다.

또한 △박세영 감독 특유의 상상력과 스타일이 돋보이는 2025년 로카르노영화제 신인 경쟁 부문 상영작 <지느러미>와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유재인 감독의 <지우러 가는 길>, △한창록 감독의 <충충충>, △2025년 도쿄국제영화제 아시아의 미래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노영환 감독의 <후광>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에 혼을 불어넣는 사람

'넥스트 액터 NEXT ACTOR' 배우 이혜리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배우 이혜리가 선정됐다. 2014년 <선암여고 탐정단> '예희' 역을 통해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혜리는 2015년 <응답하라 1988>의 '덕선'역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중에게 스타성과 연기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영화제 기간에는 배우 이혜리의 출연작 상영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GV), 스페셜 야외 토크 등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이혜리가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완성한 '넥스트 액터 셀프 트레일러 영상'이 6월 4일 개막식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의 폭넓은 연기 세계를 집중 조명 한 '넥스트 액터 NEXT ACTOR' 책자(백은하 배우연구소 발간)가 정식 출간되며, 배우 이혜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전시 프로그램도 최북미술관 기획전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대 시네아스트'

요아킴 트리에 감독 올해 '동시대 시네아스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장편 데뷔작 <리프라이즈>(2006)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 <오슬로, 8월 31일>(2011),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2021)로 이어지는 '오슬로 3부작'을 통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개인의 고립, 관계의 불안, 흔들리는 정체성을 섬세하게 포착해 왔다.

이번 '동시대 시네아스트: 요아킴 트리에'에서는 초기 단편 3편(<피에타>, <스틸>, <프록터>)을 비롯해 '오슬로 3부작'으로 불리는 <리프라이즈>, <오슬로, 8월 31일>,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그리고 최신작 <센티멘탈 벨류>가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 맞춰 감독의 영화적 방법론과 세계관을 심층 분석한 비평서가 발간되며, 그의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탐구하는 '토키시네마 프로그램'도 진행(6월 7일(일) <리프라이즈> 14:00 상영,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된다.

'디렉터즈 포커스' 변성현 감독

2026년 올해 '디렉터즈 포커스'의 주인공은 변성현 감독이다. 장편 데뷔작 <청춘 그루브>(2012)와 같은 해 <나의 PS 파트너>(2012)를 통해 상업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변 감독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7)으로 한국형 누아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후 <김메이커>(2022)를 통해 연출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글복순>(2023), <굿뉴스>(2025)를 통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장르적 확장과 연

출적 범위를 넓히며 동시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주에 온 이유? 온 이후가 더 궁금!

'보검 매직'이 아직 풀리지 않은 곳이 지적인데 영화만 볼 수 있다. 무주읍 앞섬마을에 가면 인기리에 방영됐던 '보검 매직' 촬영 현장이 그대로다. 당시의 추억을 고스란히 품은 미용실에는 아직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촬영 당시의 내외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촬영지는 매일(09:00~18:00) 개방한다. 무주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촬영지 인근에 4백여 평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 화장실도 설치했다.

앞섬마을은 금강 상류 지역으로, 무주읍 내에서 접근이 쉽다. 특히 봄철 '복숭아꽃', 여름 보양식 '어죽', '반딧불 복숭아'가 손꼽히며, '반딧불이 서식지'와 아름다운 강변길로도 유명하다. 물놀이 지형이라 '욕지의 섬'으로도 불리는데 '금강 밤 새길길(학교 가는 길)'은 앞섬마을과 후도교 다리까지 2km 구간으로, 병풍처럼 드리워진 산과 복숭아 과수원, 금강을 따라 걸으며 만나게 되는 풍경이 일품이다. '앞섬체험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체험 학습장으로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어죽은 냇가에 솔단지를 걸어놓고 직접 잡은 민물고기를 끓여서 먹으면서 유래된 무주 토속음식이다. 어죽에는 그다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싱싱한 민물고기를 솥에 넣어 반쯤 익힌 뒤 뼈를 고르고 참살과 고추장, 파, 마늘, 양파, 깨, 인삼 등 무주의 자연에서 자란 온갖 양념들을 넣는 게 전부. 하지만 한번 먹어 본 이는 두고두고 이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또다시 찾을 만큼 특별하다.

올해 부터는 '반딧불이 신비탐사(6.3~14. 10회)'와 '1박 2일 생태탐험(6.3~13. 5회)', '반디캠핑(6.6./6.13. 2회)' 프로그램을 6월과 9월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상시 운영한다. 신비탐사는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firefly.or.kr)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며, 1만 원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생태탐험과 반디캠핑 관련 내용은 생태녹색관광 누리집(mujutour.com)에서 확인하고 예약도 가능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발전소
군산발전본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CWP**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